

[TIMTOS 2015] KAFO, 대만 기계산업 발전의 산증인

2년에 한번 개최하는 대만 최대 공작기계 박람회인 TIMTOS(Taipei International Machine Tool Show, 대만 국제 공작기계 박람회, 이하 TIMTOS)가 대만 난강전시장·엑스포 돔, 대만무역센터 등에서 3일부터 5일까지 일정으로 대장정에 올랐다. 올해 25회째를 맞은 TIMTOS는 아시아의 선도적인 글로벌 공작기계플랫폼으로 불리며 세계 6대 공작기계 박람회에 속한다. 1,015개 업체 참가, 5,411개 부스, 5만3,000여명이 참관한 이번 전시회 현장에 대만무역협회로부터 초청받은 산업일보가 전시회 스케치와 업체동향 등을 생생하게 보도한다.

KAO FONG MACHINERY CO.,LTD(이하 KAFO)는 1968년 창립 이래 대만의 기계산업 성장과 궤를 같이 해온 유서 깊은 기업이다. 기존의 전통밀링 생산방식에서부터 시작해 현재는 수평, 버티칼, 호리젠탈 등의 다양한 종류의 머시닝센터를 생산하고 있다.

금형 및 고정밀 가공에 적합한 공작기계를 제작에서 판매하는데 이르기까지 우연이 아닌 핵심기술과 능력을 발전시키면서 대만명품상장을 두 차례 수상한 KAFO는 2012년에 우리나라에 정식 총판을 승인했으며 2013년에는 미국에까지 지사를 설립하는 등 중국, 대만, 한국 순으로 형성된 글로벌 시장에서 착실히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해가고 있다.



KAFO의 Jason Yu 영업상무는 “공급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했던 과거와 달리 21세기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기 때문에 초정밀도의 고품질의 상품 아니면 기업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KAFO는 기술중심의 견고한 생산방식으로 대만 공작기계의 뿌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4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집약한 견실한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평이 높다”고 언급했다.

“KAFO는 몰드계의 선구브랜드이며 공구기계사용에 있어 가장 기본에 충실한 훌륭한 파트너”라고 소개한 Jason Yu 영업상무는 “오랜 세월동안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CAD/CAM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제품에 대한 품질기술을 높이고 모듈설계표준화를 통해 효율을 증가시켰다”라고 밝혔다.

KAFO측이 이번 TIMTOS 전시회에 출시한 갠트리 머시닝 센터와 버티칼 머시닝 센터, 수평 머시닝 센터, 5축 동시 가공 센터는 모두 신상품으로 특히 갠트리 머시닝센터의 경우 5축으로 완성도를 높혔다. 또한 정밀도를 강화해 빠른 속도에서도 안정적인 작업이 가능해졌으며, 시장에서도 높은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버티칼 머시닝 센터의 경우 최대 1만 5000RPM 까지 가능한 장비를 1년에 50대씩 생산하고 있으며 독일에서 생산된 축을 사용해 한 층 높은 정밀도를 자랑한다.

항상 고객의 자리에서 기계의 용도, 생산계획, 매출액 등을 먼저 생각하며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고객의 미래까지 고려하는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KAFO는 올해 출시한 제품으로 유럽과 미국시장의 진출을 노리고 있다.